



하얀 세상 광주 지역에 최고 8.6cm 가량 눈이 내린 5일 광주시 북구 문흥지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눈에 뒤덮인 채 발이 묶여있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6일 오전까지 3~8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오늘 눈 3~8cm 더 온다

광주지방기상청은 5일 오후 4시를 기해 광주·나주·담양·장성 등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들 지역은 전날 밤 대설주의보가 한차례 발효돼 이날 오전 10시 해제됐었다.

〈관련기사 6면〉

기상청은 또 6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지역에 3~8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영상 2도 분포를 보이겠다.

이번 추위는 8일부터 서서히 풀려 평년기온을 되찾은 뒤 10일부터 또다시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출근길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한해 및 조업 선박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현재 광주 지역의 적설량은 7.6cm, 순천 2.7cm, 진도 0.4cm 등을 기록했다.

/이종희기자 glee@kwangju.co.kr

임원 20% 감축·사무직 1개월 무급휴직 금호 대대적 구조조정 착수

보유자산 매각 1조3천억 조달키로

향토기업으로 호남 유일 10대 기업이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임원 수를 20% 줄이고 전체 임원 임급의 20% 삭감을 비롯, 전 사무직에 대해 1개월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한편 보유자산의 매각을 추진해 유동성을 확보키로 했다.

〈관련기사 8면〉

금호아시아나는 5일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고강도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은 협의과정에서 추가구조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구조조정안의 핵심은 대폭적인 조직 슬림화와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로, 우선 그룹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해 온 그룹 전략경영본부 조직을 40% 이상 축소하는 한편 계열사별 조직 재정비를 통해 사장단과 임원 수를 20%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우건설(120명)을 포함해 총 370명 수준에 달했던 그룹 임원 수는 대우건설과 금호생명, 금호렌터카 매각으로 230명으로 축

소된데 이어 이번 임원 감축으로 또 다시 18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임원 감축과 함께 전체 임원 임급도 20% 삭감한다. 또 생산현장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그룹의 모든 사무직을 대상으로 1개월 무급휴직을 실시키로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와 베트남 금호아시아나플라자 등 보유 자산 매각도 추진키로 했다.

금호산업의 경우 베트남 금호아시아나플라자와 금호건설 홍콩유한공사의 자산 매각으로 4천776억원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호석유화학은 제1 열병합발전소의 세일앤리백(Sale&Lease back)과 자사주를 매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2천653억원

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 IDT와 금호총금 자본 매각 등으로 1천838억원, 금호타이어는 중국 및 베트남 소재 해외법인 지주회사인 금호타이어 홍콩 자본 49%를 매각해 1천500억

원을 확보키로 했다. 이와 추가로 가능한 자산매각을 통해 총 1조3천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게 금호측 복안이다.

금호는 더불어 복리후생 비용 축소 등 전사적 경비절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채권단과 이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민유성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이와 관련 “오늘 발표한 내용이 끝이 아니다”며 “지구계획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은 채권단과 금호 측이 서로 합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추가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될 것임을 예고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알림

‘광일춘추’ 필진 바뀝니다

전국 대표 지방 정론지들의 모임인 ‘춘추사’가 국내 정상급 필진들을 초대, 공동 게재하는 목요일 ‘광일춘추’ 필진이 새해를 맞아 새롭게 바뀝니다.

광주일보를 비롯해 부산일보, 매일신문, 경남신문, 강원일보, 경인일보, 대전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등 지역 대표신문 9개사는 각계 권위 인사들로 새롭게 필진을 구성, 한국 사회의 이슈들을 날카롭게 파헤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바랍니다.



전용배 교수 이기호 교수 김명곤 위원장 이영탁 이사장

- ◇전용배 동명대학교 교수
 - ▲미국 뉴멕시코 주립대학교 스포츠경영학 박사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이사 ▲한국야구위원회(KBO) 삼성라이온즈 자문교수 ▲부산국제 스포츠포럼 운영위원
- ◇이기호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소설가)
 - ▲추계예술대 문예창작학과 졸업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 ▲저서 ‘최순덕설령총만기’, ‘갈광일광하다가 내 이력 줄 알았지’, 미디어다음 문학속세상 ‘사과는 잘해요’ 연재주 출판.
- ◇김명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졸업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 ▲제1회 현대연극상 연출상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제8대 문화관광부 장관
-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이사장
 - ▲교육부 차관 ▲제16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경희대학교 경제학 겸임교수 ▲제7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실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민주, 광역단체장 국민경선으로

기초단체장 후보는 시민배심원제 유력 한나라당도 국민공천배심원단 운영키로

여야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후보자 선출 방식을 고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5일 이번 지방선거부터 각각 ‘국민공천배심원단’과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각각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양당이 발표한 개정안의 핵심은 상향식 공천 확대로서 운영상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천심사위가 추천한 후보를 사회적 명망가 등이 포함된 배심원단에서 다시 심사토록 한 것이다. 양당 모두 최고위원회 등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기본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5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선거에 국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경우, 대표가 추천한 30명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기초

단체장 후보를 심사할 지방 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위원회가 추천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도 이날 당헌 당규 개정 사항을 확정짓고 이를 6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천에는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민 100% 참여 ▲당원 50% 직접 참여+국민 50% 직접 참여 ▲당원 50% 여론조사+국민 50% 여론조사 ▲당원 40% 직접 참여+국민 40% 직접 참여+여론조사 20% 등 총 4가지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단체장 경선의 경우 시도당 위원장과 협의의 통해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 국민 참여를 담보하는 ‘시민 배심원제’를 가급적 많이 적

용,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기로 했다.

위원회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브리핑에서 “기초단체장 경선을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당선 가능한 지역에 시민배심원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혀, 광주 구청장 경선 및 전남 지역 시장 경선 일부에 시민배심원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원회는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 지방의원 후보의 15%를 전략 공천하는 안도 마련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어둠이던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광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한국전력, 본사 이전 부지 매매계약 체결
지역경제 발전에 희망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KEPCO